

석유화학, 수출경쟁력 “급속악화”

한은, 8월 수출물가 홀로 9.8% 올라 ... 벤젠·ABS 20% 이상 상승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의 수출물가가 10% 가까이 상승해 화학기업들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8월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중간재 수출가격은 전월대비 9.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가격 인상과 정제시설의 정기보수, 파업 등에 따른 공급감소가 주 요인으로 해석된다.

벤젠이 25.3%, 톨루엔이 20.4%, 자일렌이 13.3%, 나프타가 12.6% 오르고 ABS는 23.5%, PE는 17.5%, SM과 PP는 15.9%, 경유와 제트유는 각각 11.1%와 8.9% 오르는 등 석유화학제품 대부분의 수출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은 계절적 비수기 및 중국과의 가격경쟁으로 면사, 파일직물 등은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학섬유 방적사, Polyester 직물 등이 0.3% 상승했다.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품은 타이완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증가 및 경쟁격화 등으로 D램, 플래시메모리, 무선전화기 등이 2.2% 하락한 반면, 금속1차제품은 주요 비철금속 국제가격 상승으로 원재료비가 오르고 세계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증가로 강관, 스텐레스강관, 냉연대강, 강판 등 대다수 제품이 2.0% 상승했다.

중간재 수출물가 등락률(2004.8)

(단위: %)

구 분	등락률	주요 품목
섬유/의복/가죽제품	0.3	화섬 방적사 2.9, Polyester 0.5, 파일직물 -5.2
석유화학/고무제품	9.8	제트유 8.9, 경유 11.1, 나프타 12.6, 벤젠 25.3, 톨루엔 20.4, 자일렌 13.3, SM 15.9, PE 17.5, ABS 23.5, PP 15.9
금속1차제품	2.0	보통강봉강 10.2, 스텐레스강판 2.4, 냉연대강 2.0, 강관 7.2, 금괴 2.4, 동선 2.8
일반기계/장비제품	▽0.6	모니터 -5.5, 에어컨 -3.1, 진공청소기 -5.4, 보조기억장치 -2.0, 굴삭기 2.0, 사출성형기 1.4
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2.2	광소자 -13.1, D램 -7.3, 플래쉬메모리 -26.7, 액정표시장치 -10.3, 무선전화기 -1.1, TV수상기 -0.7
운송장비제품	▽0.6	소형승용차 -1.3, 중형승용차 -1.0, 자동차부품 1.3

† 전월대비

한편, 8월 전체 수출물가 지수는 95.90으로 2003년 8월보다 11.2% 상승했으며 1998년 11월의 16.4%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14>